

델파이 기법과 AHP를 이용한 글로벌 창업이주 요인 탐색 연구: 국내 인바운드 사례를 중심으로*

최화준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협동과정 박사과정)**

김태용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협동과정 석사과정)***

이정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스타트업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각국은 경쟁력 있는 해외창업가와 스타트업을 자국 창업생태계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창업가들은 풍부한 가용 자원 및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따라 태어난 국가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 주저 없이 국경을 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국가 간 창업 이주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론 연구의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국가 간 창업이주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글로벌 창업 이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단계의 개별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 창업이주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주의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한 델파이 기법의 적용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선행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이주에 중요한 고유요인과 하위요인, 즉 창업이주의 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단계는 AHP 모델을 이용한 중요도 측정이다. 중요도 측정은 한국으로 이주한 해외 창업가를 연구 표본으로 사용하여 글로벌 창업이주의 요인과 요소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회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창업가의 글로벌 이주의 흐름 속에 유목민적 성향을 가진 창업자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국내에 정착하기 전 이미 여러 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경험이 있다. 둘째, 글로벌 창업이주의 맥락에서 중요한 고유요인과 요소가 존재했다. 창업 비자를 포함한 정부의 글로벌 창업 이주 지원정책 패키지가 좋은 예시이다. 셋째, 글로벌 창업자들이 국내로 창업이주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창업생태계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글로벌 창업이주라는 비교적 새로운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선제적인 탐색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로 이주한 글로벌 창업자들을 한정된 샘플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가 넓은 범위에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창업이주, 글로벌창업생태계, 인바운드 프로그램, 델파이, AHP

I. 서론

오늘날 스타트업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한다(Carree & Thurik, 2010; Cohen, 2006; Kane, 2010).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그리고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스타트업생태계 구축에 국가적인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 개선을 통하여 스타트업의 활성화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의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혹은 산업의 변방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체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스타트업을 새로운 혁신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현재 창업생태계는 창업가, 관계정부기관, 투자자가 중심축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경제 성장의 이끄는 요소이다(이우진 외, 2020). 창업선진국들은 창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 본 논문은 제1저자 최화준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췌수정·보완하였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협동과정 박사과정, hwa-joon.choi@yonsei.ac.kr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협동과정 석사과정, skty1004@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jlee@yonsei.ac.kr

· 투고일: 2022-07-11 · 1차 수정일: 2022-08-08 · 2차 수정일: 2022-08-18 · 3차 수정일: 2022-08-22 · 4차 수정일: 2022-08-26 · 게재확정일: 2022-08-27

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자국 내에서 인큐베이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과 지원을 투입하며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 기관으로 매해 국가별 도시별 창업생태계 순위를 발표하는 Startup Genome(2020)과 Startup Blink(2019)는 오늘날 국가별 스타트업 지역 허브들이 글로벌화 경쟁에 뛰어들면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창업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창업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펀딩을 담당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 Grand Challenge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해마다 50개 내외의 초기 해외 스타트업을 국내로 초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 창업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수준은 낮은 편이다(김영환, 2021).

글로벌 기업가정신의 내재화는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창업생태계에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다양성이 혁신으로 이어지며, 창업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 자국의 창업생태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Ives & Carpenter, 2007; Nathan & Lee, 2013; Østergaard et al., 2011).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숙련된 인재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장기적으로는 신산업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창업국가(Startup Nation)를 표방하고 글로벌 창업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 패스트 트랙 행정, 비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글로벌 스타트업이 자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Moss, 2011). 이에 따라, 오늘날 전도유망한 많은 창업가들은 사업 성장을 위해 모국을 벗어나 더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내에서 창업국가와 스타트업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반면, 관련 주체의 학술연구는 더딘 모습이다. 이는 창업생태계가 비교적 새로운 학문적 주제이기 때문이다(Tripathi et al., 2019). 창업생태계와 현상에 대한 상세한 참고 문헌은 부족하며, 제한적이거나 심도있게 연구되어 있지 않다(Klotins et al., 2015; Paternoster, et al., 2014). 글로벌 창업생태계간 교류를 연구하는 창업 이주에 대한 문헌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창업이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으로 글로벌 창업 이주를 경험한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형태의 탐색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많은 스타트업 관련 용어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제안되었다. 그리고 현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연구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연구주제의 핵심 토픽인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창업이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동시에 연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과거의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스타트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시대에 뒤쳐진 생각이며, 현재의 스타트업은 경제 산업 구조에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창업생태계는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으며, 생태계간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별 거점 생태계의 능동적 교류를 의미하는 글로벌 창업이주 현상이 빈번해지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창업가들은 획득 가능한 자원과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실행 방식을 비교한 실현화 이론(Effectuation Theory)에 따르면 태생적으로 스타트업은 효과 지향적이다(Read et al., 2009; Read & Sarasvathy, 2005; Sarasvathy, 2001). 해당 이론은 스타트업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가용 수단에 접근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타트업이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감지할 때 기존에 머물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 창업 이주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 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이론을 개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이주는 창업가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 전자의 관점은 창업자 개인의 성격이 창업이주를 주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Ardichvili et al., 2003; Hills et al., 1999; Ucbasaran et al., 2003).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으로 창업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푸쉬앤풀 이론(Push and pull theory of entrepreneurship)이 좋은 예시이다.

이에 반해, 후자의 관점은 사회적 및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창업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설명한다(Drucker, 2014; Eckhardt & Shane, 2003; Shane, 2000; Venkataraman, 2019). 이는 창업이주가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지식과급이론(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과 네트워크이론(Network theory)이 좋은 예시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 모두 설득력이 있기에, 하나의 관점이 전적으로 창업이주를 유인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을 모두 참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비교를 진행한 학술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선택했음을 부연하고 싶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글로벌 창업 이주이지만, 관련한 학술적 연구 결과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리적 창업생태계 및 생태계 평가 요인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글로벌 창업이주를 국가별 창업생태계 간 이동 현상이라 전제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별 스타트업 클러스터링과 그 특성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문헌 검토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글로벌 창업이주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다.

2.1 스타트업

스타트업의 정의는 다양하다. 스타트업 방법론으로 유명한 Reis(2011)는 스타트업을 “극도의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설계된 조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Crowne(2002)은 “투자자, 고객, 경쟁자,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제한된 경험과 부족한 자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본 Blank & Dorf(2020)는 “확장가능하고, 반복가능하며, 수익성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임시조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지만, ‘작은 조직’, ‘불확실성’과 같은 공통적인 키워드도 발견된다.

스타트업은 종종 중소기업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등가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senberg(2011)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파트너 혹은 2차 공급업체로서 동일한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 것에 반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고 독립적인 가치사슬을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는 것과 반대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위험을 피하고 경영자들의 통제 하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점이 존재한다.

2.2 창업생태계

생태계라는 개념은 자연과학 영역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Ives & Carpenter(2007)에 따르면 생태계는 생태학적 단위로서, 종이 다른 생물 및 무생물 간의 상호작용하는 생물학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후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군집 내 유기적 상호작용을 반영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해당 용어를 종종 차용하였다. Moore(1993)는 자연계의 생태계 현상에 빗대어 비즈니스에 생태계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그는 비즈니스 생태계 개념을 “비즈니스 세계의 유기체인 조직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경제공동체”로 더욱 구체화하였다(Moore, 1996).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Rothschild(2004)는 비즈니스 시장경제를 살아있고 진화하는 생태계로, 시장 참여자를 유기체로 보았다. 또한 Mäkinen & Dedehayir(2012)는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기업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창업생태계 역시 비즈니스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차별점도 발견된다. 첫째, 비즈니스 생태계의 개념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수용되면서 창업생태계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Lee et al., 2017). 둘째, 시간의 관점에서 6년 이하의 신생기업을

비즈니스 생태계 내 벤처기업으로 보고 이들의 집합을 창업생태계로 한정하는 의견도 있다(Zahra, 2007; Zahra & Nambisan, 2012). 셋째, 지리적으로 창업생태계를 한정하기도 한다. Cohen(2006)은 창업생태계를 독립적인 행위자와 구성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설명했다. Cukier et al.(2016)는 창업생태계를 30마일(mile) 혹은 한 시간 이내 지역에서 사람, 스타트업, 다양한 형태의 지원 조직, 복합시스템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을 창출하고 기존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한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창업생태계는 이러한 차별점이 포함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2.3 창업이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효율 자원과 비즈니스 기회에 접근과 획득이 더 용이한 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은 창업가에게 당연한 결정이다. 창업 이주 현상을 연구한 Guzman(2019)은 스타트업이 더 많은 가용 자원을 가진 집적지역(Agglomeration area)으로 이동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를 뒷받침 하듯 Bryan & Guzman(2021)이 진행한 연구는 미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낮은 세금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친화적 도시로 이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창업이주는 국가 간에도 목격되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혁신을 위한 비교우위를 가진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Conti & Guzman, 2021). 창업자들의 이주가 잦아지며 많은 창업국가들은 다양한 유인책을 가지고 외국의 기업과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들은 창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이들을 환영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창업생태계가 점점 글로벌화되고, 창업이주가 점점 보편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이다.

2.4 이론적 배경

창업이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가 개인의 특징과 사회적 환경 모두 중요하다(Thai & Turkina,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글로벌 창업이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3절에서 도출할 창업생태계의 8가지 핵심요인들의 근거이기도 하다.

개인적 맥락에 대한 선행연구는 창업가 개인 특성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고 실현하는 핵심이라 말한다(Ardichvili et al., 2003; Hills et al., 1999; Ucbasaran et al., 2003). 이는 창업자 개인의 동기를 밝히는 푸시풀(Push and pull theory of entrepreneurship)이론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이론은 개인적 특성이 주요 창업 동기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Amit & Muller, 1995). 창업자의 스타트업 오너쉽을

국가별로 비교한 연구도 있다(Van der Zwan et al., 2016). 따라서 창업이주 환경에서는 창업자(Entrepreneur)의 개인적 특성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맥락 역시 창업이주를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적절하다. 정보 비대칭, 사회, 경제, 인구통계학적 변화들, 그리고 새로운 발명과 발견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광범위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Drucker, 2014; Eckhardt & Shane, 2003; Shane, 2000; Venkataraman, 2019), 이는 역사적으로 창업가들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많은 기회를 찾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Stam & Van de Ven(2021) 역시 사회적 맥락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힘의 역할을 통합하여 창업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요인, 시장(Market)요인, 기술(Technology)요인, 지원(Support Factors)요인 등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창업환경을 설명하는 사회적 맥락은 지식과급이론과 네트워크이론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지식과급이론은 지식이 창업의 핵심이라고 간주하였다. Belitski & Desai(2016)은 지식과급효과와 지역 경쟁력, 스타트업 클러스터링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으며, Audretsch & Lehmann(2005)은 교육과 같은 지역 사회 자본의 규모와 창업 활동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창업활동으로 생성되고 분할된 지식과 유럽 도시의 경제발전의 상호적 연관성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Audretsch & Belitski, 2013; Audretsch et al., 2015). 교육(Education)과 같은 지적요인들이 창업생태계 형성에 핵심인 이유일 것이다.

지식 과급 이론은 더 많은 지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창업가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기 적합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되는 이유와 창업가들이 그것에 높은 접근성을 원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이론 역시 사회적 맥락에서 창업과 사회적 자본의 집적효과를 잘 설명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사회적, 경제적 자본이 창업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자원이 유입되어 더 많은 창업가를 끌어들이는 순환적 생태계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생태계 내에서 형성된 스타트업 네트워크는 구성원간 파트너십과 협업을 통해 집단의 공동 성장을 가속

화시키기도 한다. 실레로, Larson(1991)은 스타트업이 네트워크 자본을 식별, 육성 및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네트워크 자본이 생존과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지배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uggins & Thompson(2015)은 창업, 혁신 및 지역 성장 간의 관계가 일련의 네트워크에 의해 관리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창업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이 지역 창업생태계 성장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창업생태계 형성에는 경제적 자본(Finance)와 인적 자본(Human capital)등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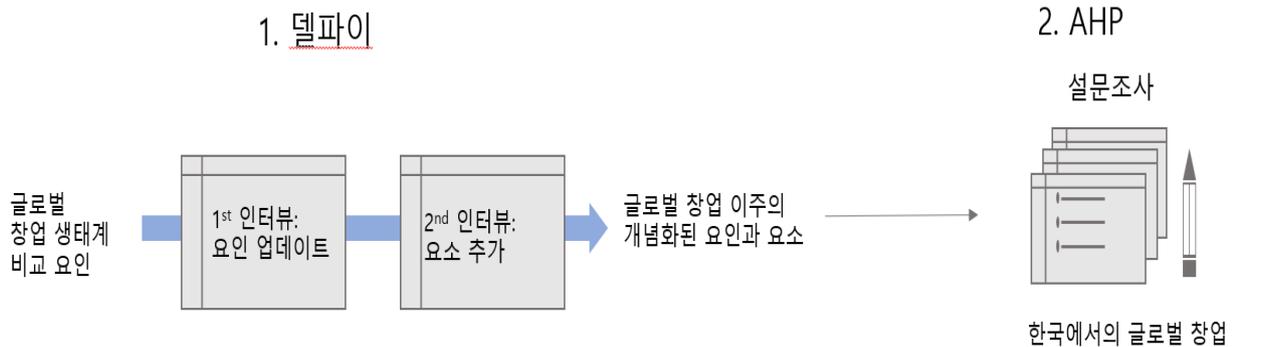
지식 과급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은 지식 혹은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가 자신뿐만 아니라 창업생태계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기에서 언급한 이론들은 국제비교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검색엔진과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여 창업생태계 관련 문헌을 수집했다. 검색 키워드는 ‘global startup ecosystem’, ‘global startup index’,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으로 진행하였다.

검색 키워드를 통해 약 200여 개의 논문을 검색결과로 얻었는데 몇 가지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검색 결과를 더욱 정교화했다. 우선 중복 검색된 논문과 발행기관이 불분명한 선행 연구를 제외하였다. 비영어권 연구 결과와 초록의 내용이 연구 주제와 적합하지 않은 검색결과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 내 단일 창업생태계 관련 문헌을 제외하고 국가 수준(Country level)의 창업생태계 비교 연구만을 선행연구 대상으로 축소하였다. 본 연구가 국가 수준의 창업생태계 간 이동이기 때문에, 단일 국가 내 지역생태계 이동이나, 단일생태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본 연구범위와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토픽이 아닌 중소기업을 함께 다룬 연구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2.1.절에서 제시한 Isenberg(2011)의 관점을 따라 검색 범위를 스타트업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은 연구토픽으로 다룬 문헌을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논문의 연구주제 및 범위에 맞는 9편의 학술 자료를 선정하고 검토하였으며, 모두 국제 비교 관련 문헌들로 <부록 1>에 첨부하였다.



<그림 1> 연구방법

개별 문헌들은 지역별 창업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하위요인, 즉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를 8가지 범주로 통합 및 정리하고 창업생태계의 주요 8개 요인으로 보았다. 주요 8개 요인의 정의와 예시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1> 8개 주요 요인의 정의와 예시

요인	정의	예시
창업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실적, 창업 수, 창업 조건, 생산적 기업가정신
재무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	자금조달, 자원, 민간 투자 총액
인구통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상승하거나 안정되어, 이용 가능한 산업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풍부한 환경.	영어수준, 인종다양화,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시장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활성 사용자 수 및 유료 고객 수. 현지 시장 크기.	시장 크기, 소비 수단, 접근 가능한 시장, 경쟁
교육	경험이 풍부한 창업가와 강력한 창업 생태계 형성에 필요.	지식, 주요 대학, 창업 스킬
인적 자본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 집단을 말함	인적자원의 질, 수요 및 인력, 스타트업 당 직원 수
기술	많은 스타트업이 주로 정보기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및 기술 활용을 집중한 제품 개발에 관심을 가짐.	R&D 투자, IT & 인터넷, 기술 서비스 가용성, 스타트업 당 특허 수, 제품 개발
지원요인	창업생태계에서 특별하고 중요하며, 앞서 언급한 요인들을 지원하는 것들.	문화 지원, 정책, 공식 및 비공식 기관, 인프라, 지역적 맥락

Process)모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이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본다. AHP는 정성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과 비중을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해석해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Saaty, 1989). 이를 위해, 모든 요인과 요소들을 계층적 의사결정 구조로 구성하여 일관성 계산 및 검증, 가중치 계산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Saaty, 1989). 본 논문은 AHP를 이용하여 글로벌 창업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창업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과 요소를 확인하고 함의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그림 1>과 같이 크게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앞서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될 8개 요인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글로벌 창업이주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상기 요인들이 국가 수준 지역생태계 형성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창업이주의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한 8개의 주요 요인들은 글로벌 창업이주 상황에 알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델파이방법을 차용하여 글로벌 창업이주에 대한 지식이나 직접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두 차례 인터뷰 진행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창업이주 측정에 필요한 요인, 요소, 그리고 답변에 대한 근거를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이론적 근거에서 제안된 8개의 요인 중 불필요한 요인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였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째 단계에서 얻은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 중요도 측정 방법론인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모형을 이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얻은 요인들과 요소들로 쌍대비교 설문문을 구성하였으며, 국내로 창업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를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및 방법

본 논문은 첫째, 글로벌 창업이주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주를 결정하는 창업자들의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연구주체의 정의 및 문헌 검토를 통해 글로벌 창업이주와 관련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개발한다. 셋째, 델파이(Delphi)방법론을 이용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이주와 관계 있는 잠재적 요인과 요소를 탐색 및 도출한다. 델파이(Delphi)방법은 응답자의 익명성,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통계적 분포의 제시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이나 사회문제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Linstone & Turoff, 1975). 따라서 본 연구는 델파이(Delphi)방법을 이용하여 창업이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들의 견해를 구조화 및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정리하여(Williams & Webb, 1994), 글로벌 창업이주에 대한 주요 요인과 요소를 끌어내고자 했다. 넷째, 앞서 도출한 요인과 요소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IV. 연구 결과

4.1 델파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차용하여 총 두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인터뷰의 목적은 글로벌 창업이주의 주요 요인 도출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2명을 전문가를 초청하였는데 그 중 8명이 1차 인터뷰에 참여했다. 1차 인터뷰 대상자들은 <표 2>와 같다.

공공부문 전문가 5명, 민간부문 전문가 2명, 비정부기관 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D와 전문가 F는 글로벌 스타트업 커뮤니티 운영자이다. 전문가 C는 공공기관에서 글로벌 창업 이주를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글로벌 창업이주 프로그램에 2년 이상 참여 및 운영한 적이 있는 직접 경험 보유자들이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들에게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창업생태계의 주요 8개 요인을 보여

주고, 이를 글로벌 창업이주 상황에 알맞게 재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추가할 부분과 삭제할 요인을 선택하고, 답변의 근거를 요청했다.

<표 2> 1차 인터뷰 참석자

응답자	직함	조직	역할 및 책임
전문가 A	프로젝트 매니저	공공 부문	운영
전문가 B	프로젝트 매니저	공공 부문	운영
전문가 C	연구원	공공 부문	스타트업 연구와 정책 수립
전문가 D	리더	비 정부기관	스타트업 커뮤니티
전문가 E	CEO	민간 부문	엑셀러레이션과 벤처 캐피탈
전문가 F	커뮤니티 리더	민간 부문	스타트업 커뮤니티
전문가 G	프로젝트 매니저	공공 부문	운영
전문가 H	프로젝트 매니저	공공 부문	운영

참여 전문가들의 절반은 교육(Education)요인이 글로벌 창업이주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들은 교육과 관련된, 예컨대 대학 졸업장이나 지역 내 대학의 숫자 등은 글로벌 창업 이주와 연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교육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오히려 창업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교육이 아닌 현장과 사업 활동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주목할만한 추가적인 의견도 있었다. 글로벌 창업 이주에서는 창업가 스스로 이주 국가를 선택해 목표시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다. 반면, 창업가(Entrepreneur), 시장(Market), 인적자본(Human capital), 지원요인(Support factors) 등을 불필요한 요인으로 선택한 전문가는 없다.

동시에 창업이주에 추가적으로 필수적인 요인에 대한 질문을 요청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정부 지원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서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창업자들 간의 자율적 교류 활동 기회를 의미한다. 글로벌 창업가들은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교류하는 비공식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공 지원이 글로벌 창업 이주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창업 친화적인 정책과 규정이 없다면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1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초기 8개 요인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Education)요인이 삭제되었다. 교육은 지역 창업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지만, 글로벌 창업이주의 맥락에서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1차 인터뷰를 통해 기존 하나의 지원(Support factors) 요인을 세부적으로 두 개, 즉 민간지원

(Support factors from the private sector)요인과 공공지원(Support factors from the public sector)요인으로 분리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1차 인터뷰를 통한 요인의 수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요인의 수정

2차 인터뷰는 각각의 요인에 종속된 하위요인, 즉 요소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총 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6명은 1차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2명은 새롭게 2차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새로 합류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창업이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에 정착한 해외창업가들의 어려움과 지원사항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2차 인터뷰는 참여자들에게 1차 인터뷰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제시하고 요인별로 중요하고 요소와 의견 공유를 요청하였다.

2차 인터뷰 결과, 글로벌 창업이주 주요 요인에 핵심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흥미롭게도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기보다 요인별로 소수의 공통요소를 제시하였다. 기업가(Entrepreneur)요인과 관련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은 미션과 비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창업 이주의 상황에서도 스타트업이 나아가는 방향, 즉 미션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답변의 근거로 삼았다. 재무(Finance)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창업가가 이주 국가의 재정적 지원금액과 형태에 민감해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인구통계학(Demographic) 요인 관련해서는 언어와 다양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환경(Social culture)이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다.

시장(Market)요인과 관련하여 시장의 규모를,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관련하여 인적 자원의 질과 인건비가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다. 기술(Technology)요인에서는 R&D투자 와 인프라가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며, 민간지원(Support factors from the private sector)요인으로는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가장 많이 언급된 요소였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엑셀러레이션(Acceleration)과 인큐베이션(Incubation)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공공지원(Support factors from the public sector)요인으로는 규제 및 정책(Policy and regulation)과 함께

비자 지원(Visa sponsorship)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해외창업자를 위한 비자 지원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임을 지적하였으며, 장기적으로도 국내 창업생태계가 글로벌화되기 위해 적절한 비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2 AHP

앞서 진행한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하여 글로벌 창업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및 요소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과 요소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AHP는 쌍대비교를 통하여, 주어진 선택 사항에 대해서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선택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Saaty, 1989). 본 연구는 AHP 모델을 적용한 설문을 이용해 창업가가 글로벌 창업이주를 고민할 때, 어떠한 요인과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표 3> 글로벌 창업이주 요인 및 요소

레이어 1	레이어 2	
창업가	미션/비전	액션/실행
재무	자금 조달 기회	정부 재정 지원
인구통계	언어	사회 문화
시장	시장 크기	
인적 자본	인적 자원의 질	인건비
기술	R&D 투자	인프라
민간 지원	스타트업 커뮤니티	엑셀러레이션/인큐베이션
공공 지원	규제 및 정책	비자 지원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AHP모델 구성을 <표 3>에 나타냈다. AHP 계층은 앞서 진행한 델파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인과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AHP는 기준과 속성으로 구성되는데, 각 기준에는 하나 이상의 속성이 있다. 본 모델에서 요인은 기준에 해당하며, 요소는 속성에 해당한다. 즉, <표 3>에서 레이어 1은 요인을 나타내는 상위 계층이며, 레이어 2는 요소를 나타내는 하위 계층을 나타낸다. 각 계층별로 쌍대비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구성 요인과 요소의 최종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보여줄 것이다.

AHP설문 대상은 글로벌 창업이주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로 이주를 해서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글로벌 창업자들이다. 총 18명의 해외 창업자들이 참여했고, 2명은 결측데이터가 많아 제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포함한 최종 16명의 해외창업자들의 개인정보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개인정보 이슈

로 참여 회사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4> AHP 설문 대상(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회사	직함	성별	나이	한국 이주 이전 나라
스타트업 1	CEO	남성	37	N/A
스타트업 2	공동 설립자	남성	42	칠레
스타트업 3	CEO	남성	43	N/A
스타트업 4	CEO	남성	34	N/A
스타트업 5	설립자	남성	N/A	N/A
스타트업 6	관리자	남성	N/A	N/A
스타트업 7	CEO	남성	36	N/A
스타트업 8	설립자	남성	41	대만, 스위스, 덴마크
스타트업 9	CTO	남성	36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타트업 10	CEO	여성	30	N/A
스타트업 11	CEP	남성	39	N/A
스타트업 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N/A
스타트업 13	지역 관리자	남성	35	N/A
스타트업 14	CEO	남성	28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스타트업 15	CEO	남성	34	싱가포르
스타트업 16	CEO	여성	28	N/A

설문 참여자들은 모두 창업자이거나 혹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이들 중 13명은 남자이며, 2명은 여자, 1명은 성별 공개를 거부했다. 연령은 28세에서 43세 사이로 국내로 창업이주전 이미 사회적 경험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배경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설문 참여자들의 약 3분의 1이 국내에 정착하기 이전 이미 동일한 사업체로 다른 나라에서 창업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선의 환경을 찾아 여러 국가를 찾아다니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창업 유목민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글로벌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AHP 결과는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해당 표는 설문에 참여한 16명의 글로벌 창업자들 중 8명의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때문이다. CR은 응답자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Saaty, 1989).

응답자 CR값이 0에 가까울수록 답변이 일관적이라고 간주되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응답자의 답변이 비일관적이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가진다. CR기준값 설정은 연구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CR 수준이 0.1이하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문참여자가 AHP모델에 대한 배경 정보가 거의 없을 때 0.2이하도 허용된다(Saaty & Kearns, 2014). 본 연구는 AHP의 모델의 속성이 8개로 쌍대비교 질문의 숫자가

많은 편이다. 설문 참여자의 피로도가 높을 것이기에 높은 일관성, 즉 낮은 CR값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해외 창업자들이 AHP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CR의 기준을 0.2이하로 하였다. 따라서, 16명의 설문 결과중 CR값이 0.2를 초과하는 8개를 제외하고 최종 8명의 인터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5> CR값이 0.2 미만 응답-1

	스타 트업 3	스타 트업 5	스타 트업 8	스타 트업 11	스타 트업 12	스타 트업 13	스타 트업 14	스타 트업 15	평균
창업가	0.095	0.018	0.068	0.061	0.134	0.080	0.217	0.020	0.087
재무	0.064	0.168	0.019	0.035	0.228	0.267	0.022	0.125	0.116
인구통계	0.283	0.365	0.410	0.386	0.381	0.032	0.031	0.341	0.279
시장	0.089	0.036	0.085	0.024	0.022	0.016	0.016	0.028	0.039
인적 자본	0.061	0.027	0.017	0.135	0.116	0.145	0.131	0.045	0.085
기술	0.068	0.104	0.041	0.121	0.030	0.159	0.349	0.077	0.118
민간 지원	0.156	0.135	0.139	0.113	0.021	0.150	0.117	0.138	0.121
공공 지원	0.184	0.147	0.223	0.126	0.069	0.153	0.118	0.226	0.156
CR	0.058	0.106	0.175	0.100	0.140	0.181	0.148	0.203	

<표 6> SCR값이 0.2미만 응답-2

레이어 1	가중치	레이어 2	가중치	가중치	순위
창업가	0.087	미션/비전	0.711	0.062	6
		액션/실행	0.289	0.025	15
재무	0.116	자금 조달 기회	0.474	0.055	10
		정부 재정 지원	0.526	0.061	7
인구통계	0.279	언어	0.620	0.173	1
		사회문화	0.380	0.106	2
시장	0.039	시장크기	1.000	0.039	13
인적 자본	0.085	인적 자원의 질	0.495	0.042	12
		인건비	0.505	0.043	11
기술	0.118	R&D 투자	0.495	0.059	9
		인프라	0.505	0.060	8
민간 지원	0.121	스타트업 커뮤니티	0.734	0.089	3
		엑셀러레이션/인큐베이션	0.266	0.032	14
공공 지원	0.156	규제 및 정책	0.516	0.080	4
		비자 지원	0.484	0.075	5

최종 결과는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결과는 글로벌 창업자들이 창업이주를 고민할 때 우선 순위를 보여준다. 우선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요인, 그리고 하위 요소들인 언어(Language)와 사회적 환경(Social culture)이 최상위권을 차

지했다. 이를 통해, 이주하는 국가에서의 소통과 문화적 다양성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원요인(Support factors)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스타트업 커뮤니티(Startup community), 비자 지원(Visa sponsoship), 정부 정책(Regulation & Policy) 등이 우선 요소로 발견되었는데 모두 전문가 인터뷰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언급된 부분들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창업 선도국이 글로벌 창업가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글로벌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창업이주 전문가들의 의견 수집과 국내로 창업이주한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설문을 수행하고, 글로벌 창업이주 현상 속에 담긴 의미들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글로벌 창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의 이주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1/3은 복수의 국가로 창업이주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는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더 좋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러 창업국가들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기 위한 글로벌 창업이주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글로벌 창업이주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인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의 중요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글로벌 창업이주의 맥락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는 지역 창업생태계의 모든 구성 요인들이 글로벌 창업이주에서는 필수수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지역 창업생태계에서는 교육(Education)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글로벌 창업이주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들에게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중요할 수 있지만, 글로벌 창업이주자들은 이미 창업 유경험자들이기에 이들에게 교육은 핵심적이지 않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글로벌 창업이주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비자 지원 등은 국내 창업생태계 육성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벌 창업이주에서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셋째, 글로벌 창업이주에서 중요한 요인과 요소의 우선순위 확인이다. 글로벌 창업가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 차원 요인과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선순위를 알아보는 설문 결과 상위권에는 언어, 사회문화, 스타트업 커뮤니티, 비자 지원 등의 개인적 수준의 요소가 보인다. 회사수준(firm level)의 요인인 재무(Finance), 시장(Market) 등은 하위권에 있다. 특히 설문 결

과에서의 중요도 1순위와 2순위로 언어(Language)와 사회문화(Social culture)는 창업자와 구성원 개인들이 새로운 사회 속에 정착하기 위한 이슈들이다. 물론 사회문화와 언어적 요인은 조직과 기업의 글로벌이주에서도 중요한 요인이기에 온전히 개인적 수준으로 해석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창업가 개인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얻은 결과이기에 언어와 사회문화 요소를 개인적 수준에서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글로벌 창업이주가 주목을 받으며 본 논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글로벌 창업이주 연구가 희소한 현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영역의 탐색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글로벌 창업이주의 전문가와 국내로 창업이주한 해외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글로벌 창업이주에 대한 중요한 요인과 요소들을 탐색하고 그들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함의는 일반화가 어렵다. 국내로의 창업이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찾은 의미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국가별 거점 창업생태계들은 지역적 특수성과 국가별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국내 창업생태계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 글로벌 창업생태계 관련 지표와 기업가적 생태계 지표들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글로벌 지표들의 통합은 보편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국내로의 창업이주의 개별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해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인바운드(Inbound) 창업이주 관계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와 의미가 글로벌 창업이주의 다른 주요 현상인 아웃바운드(Outbound)의 환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창업이주의 요인과 요소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제시하였지만, 이는 창업자가 창업이주를 결정할 시점으로 창업이주 이후의 변화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이는 중단 연구와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REFERENCE

김영환(2021).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967-2990.

이우진·오혜미·김도현·김종성·김가영(2020). 창업생태계 측정모형과 지표개발: 텔파이분석을 통한 지역창업생태계 측정지표 개발. *벤처창업연구*, 15(4), 1-15.

최화준(2022). 스타트업의 글로벌 이동: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이주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Amit, R., & Muller, E.(1995). "Push" and "pul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12(4), 64-80.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Audretsch, D. B., & Belitski, M.(2013). The missing pillar: The creativity theory of knowledge spillover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41(4), 819-836.

Audretsch, D. B., Belitski, M., & Desai, S.(2015).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in citie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55(1), 33-60.

Audretsch, D. B., & Lehmann, E. E.(2005). Does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hold for regions? *Research policy*, 34(8), 1191-1202.

Belitski, M., & Desai, S.(2016). Creativi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city-level evidence on creativity spillover of entrepreneurship.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1(6), 1354-1376.

Blank, S., & Dorf, B.(2020). The startup owner's manual: The step-by-step guide for building a great company: *John Wiley & Sons*.

Bryan, K., & Guzman, J.(2021). Entrepreneurial Migration. *Available at SSRN*.

Carree, M. A., & Thurik, A. R.(2010).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economic growth. In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pp. 557-594): Springer.

Choi, H. J.(2022) *Cross-Border Migration of Startups: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Involved among Global Startups in South Korea*.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Cohen, B.(2006).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5(1), 1-14.

Conti, A., & Guzman, J. A.(2021). What is the US comparative advantage in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Israeli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45.

Crowne, M.(2002). Why software product startups fail and what to do about it. Evolution of software product development in startup companies. *Paper presented at the IEEE International Engineering Management Conference*.

Cukier, D., Kon, F., & Lyons, T. S.(2016). Software startup ecosystems evolution: The New York City cas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Technology and Innovation/IEEE International Technology Management Conference (ICE/ITMC)*.

Drucker, P.(2014).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London: Routledge.

Eckhardt, J., & Shane, S.(2003). The individual-opportunity nexus: A new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in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Z. Acs and D. Audretsch. In: Boston, MA: Kluwer.

Foster, G., Shimizu, C., Ciesinski, S., Davila, A., Hassan, S., Jia, N., & Morris, R. (2013). Entrepreneurial ecosystems around the globe and company growth

- dynamics. In World Economic Forum (Vol. 11, pp. 1-36).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 Guzman, J.(2019). Go west young firm: agglomeration and embeddedness in startup migrations to Silicon Valley.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18-49).
- Hills, G. E., Shrader, R. C., & Lumpkin, G. T.(1999). Opportunity recognition as a creative proces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19), 216-227.
- Huggins, R., & Thompson, P.(2015).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regional growth: a network theory. *Small business economics*, 45(1), 103-128.
- Isenberg, D.(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1(781), 1-13.
- Ives, A. R., & Carpenter, S. R.(2007). Stability and diversity of ecosystems. *science*, 317(5834), 58-62.
- Kane, T. J.(2010). The importance of startups in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Available at SSRN 1646934.
- Kim. Y. H.(2021). Development of Korea's Start-up Ecosystem through Benchmarking of Foreign Countries.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nvergence Conference*. 2967-2990.
- Klotins, E., Unterkalmsteiner, M., & Gorschek, T.(2015). Software engineering knowledge areas in startup companies: a mapping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oftware Business*.
- Larson, A.(1991). Partner networks: Leveraging external ties to improv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3), 173-188.
- Lee, M., Lee, M., & Kim, J. (2017). A dynamic approach to the start-up business ecosystem: A cross-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japan. *Asia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2(2), 157-184.
- Lee. W. J., Oh M. H., Kim D. H., Kim J. S. & Kim G. Y.(2020). Developing Measurement Model and Indicatorsfor Entrepreneurial Ecosystem: Focusing onRegional E-Ecosystem Indicator via Delphi Analy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15.
- Linstone, H. A., & Turoff, M.(1975). The delphi method: Addison-Wesley Reading, MA.
- Mäkinen, S. J., & Dedehayir, O.(2012). Business ecosystem evolution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A literature review. *Paper presented at the 2012 18th International ICE Conference on Engineer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 Moore, J. F.(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3), 75-86.
- Moore, J. F.(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and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HarperCollins*.
- Moss, I.(2011). "Start-up nation: An innovation story."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ererver(285): 33.
- Nathan, M., & Lee, N.(2013). Cultural Diversit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irm-level Evidence from London. *Economic geography*, 89(4), 367-394.
- Østergaard, C. R., Timmermans, B., & Kristinsson, K.(2011). Does a different view create something new? The effect of employee diversity on innovation. *Research policy*, 40(3), 500-509.
- Paternoster, N., Giardino, C., Unterkalmsteiner, M., Gorschek, T., & Abrahamsson, P.(2014). Software development in startup companies: A systematic mapping study. *Information and Software Technology*, 56(10), 1200-1218.
- Read, S., & Sarasvathy, S. D.(2005). Knowing what to do and doing what you know: Effectuation as a form of entrepreneurial expertise. *The journal of private equity*, 9(1), 45-62.
- Read, S., Dew, N., Sarasvathy, S. D., Song, M., & Wiltbank, R.(2009). Marketing under uncertainty: The logic of an effectual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73(3), 1-18.
- Reis, E.(2011). The lean startup. New York: *Crown Business*, 27, 2016-2020.
- Rothschild, M.(2004). *Bionomics: Economy as business ecosystem*: Beard Books.
- Saaty, T. L.(1989). Group decision making and the AHP. I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p. 59-67): Springer.
- Saaty, T. L., & Kearns, K. P.(2014).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 (Vol. 7)*: Elsevier.
- Sarasvathy, S. D.(2001). Causation and effectuation: Toward a theoretical shift from economic inevitability to entrepreneurial contingenc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243-263
- Startup Blink.(2019). *Startup ecosystem rankings report 2019*. Online report available at: <https://www.startupblink.com/>
- Startup Genome.(2020).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GSER 2020-The New Normal for the Global Startup Economy and the Impact of COVID-19. Startup Genome.
- Shane, S.(2000). Prior knowledge and the discove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rganization science*, 11(4), 448-469.
- Stam, E., & Van de Ven, A.(2021).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56(2), 809-832.
- Thai, M. T. T., & Turkina, E.(2013). Entrepreneurial migration: characteristics, causes and effects.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 Tripathi, N., Seppänen, P., Boominathan, G., Oivo, M., & Liukkunen, K.(2019). Insights into startup ecosystems through exploration of multi-vocal literature.
- Ucbasaran, D., Westhead, P., Wright, M., & Binks, M.(2003). Does entrepreneurial experience influence opportunity identification? *The journal of private equity*, 7(1), 7-14.
- Information and Software Technology, 105, 56-77.
- Van der Zwan, P., Thurik, R., Verheul, I., & Hessels, J.(2016).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engagement of opportunity and necessity entrepreneurs. *Eurasian Business Review*, 6(3), 273-295.
- Venkataraman, S.(2019).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In Seminal ideas for the next twenty-five years of advances: Emerald Publishing*

Limited.

- Williams, P. L., & Webb, C.(1994). The Delphi technique: a methodological discuss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1), 180-186.
- Zahra, S. A.(2007). Contextualizing theory building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3), 443-452.
- Zahra, S. A., & Nambisan, S.(2012). Entrepreneurship and strategic thinking in business ecosystems. *Business horizons*, 55(3), 219-229.

부록 1. 학술자료

저자/조직	제목	연도	설명
Foster, G. et al./World Economic Forum	Entrepreneurial ecosystems around the globe and company growth dynamics. In World Economic Forum (Vol. 11, pp. 1-36)	2013	- 기업가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8가지를 규정하고 하위 요소를 정리 국가 수준(Country level)에서의 비교
Startup Genome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	2021	-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 국가별 거점 창업생태계 도시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자료 취합 - 도시/국가별 창업생태계 관련 지수를 통합하며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고 창업생태계 순위를 발표
Startup Blink	Global Startup Ecosystem Index 2021	2021	-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 Quantity, Quality, Business environment의 측면에서 도시/국가의 창업생태계 평가 - 도시/국가별 창업생태계 관련 지수를 통합하며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고 창업생태계 순위를 발표
Aleksi Aaltonen	Factors shap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the rise of entrepreneurship: A view from top management journals. Demos Helsinki Associate.	2016	- 2010년 이후 발간된 지역 창업생태계 관련 문헌을 탐색하여 주요 요인 10가지 요약
Daniel Isenberg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ic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Affairs, 1(781), 1-13.	2011	- 중소기업과는 다른 차별적인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업가적 생태계를 정의하고 주요 구성 요인 6가지(Policy, Finance, Culture, Supports Human capital, Markets) 제안
David B. Audretsch, Maksim Belitski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cities: establishing the framework condition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2(5), 1030-1051.	2017	- 70여개의 유럽 도시 창업생태계를 비교하여 인덱스 (Region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 RED)를 구성하고 6가지(Culture and norms, Formal institutions, Physical infrastructure and amenities, IT and Internet, Melting pot, Demand and workforce) 주요 영향요인 도출
Stam, E., & Van de Ven, A.	Entrepreneurial ecosystem elem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56(2), 809-832.	2021	- 기업가적 생태계를 개인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서 모두 바라보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Institutions, Resources, New Value Creation) 분석하고 여러 하위 요소를 제안
Tripathi, N. et al.,	Insights into startup ecosystems through exploration of multi-vocal literature. Information and Software Technology, 105, 56-77.	2019	- 초기 IT스타트업 위한 창업생태계 문헌을 탐색하고 주요 요인 8가지(Entrepreneur, Support factors, Finance, Demographic, Market, Education, Human Capital, Technology) 도출

부록 2. 델파이 인터뷰 주요 질문 및 주요 답변 요약

질문(요약)	답변(요약)
<p>Q. 글로벌 창업이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창업가 <input type="checkbox"/> 재무 <input type="checkbox"/> 인구통계 <input type="checkbox"/> 시장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인적 자본 <input type="checkbox"/> 기술 <input type="checkbox"/> 지원 요인 <input type="checkbox"/> 모두 필요</p>	<p><input type="checkbox"/> 교육 "교육기관의 인증서는 전통적인 기업환경에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창업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교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교육을 받고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습니다."</p>
<p>Q. 질문에서 선택한 답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p>	<p>"창업 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일반적으로 (교육이 아니라)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습득합니다."</p>
<p>Q. 앞서 언급한 8가지 요소 외에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이주를 고려할 때 어떤 요인(또는 요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스타트업이나 글로벌 이주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 비즈니스 및 문화적인 방식으로 서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 <p>"물리적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p> <p>"지역 창업 생태계에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비공식적인 형태의 지원 네트워크입니다. "</p>
<p>Q. 질문에서 선택한 답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p>	<p>"비자, 법인화 등과 같은 규제 측면에서 국제 기업인들을 환영하는 환경을 제공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p> <p>"창업 친화적 정책(세금 보조금 등), 언어 소통의 용이성, 충분한 시장 규모는 글로벌 창업이주를 원하는 창업자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p>

Factors and Elements for Cross-border Entrepreneurial Migr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Global Startups in South Korea*

Hwa-joon Choi**

Tae-yong Kim***

Jungwoo Lee****

Abstract

Startups are recognized as the vitality of the economy, and countries are competing to attract competitive overseas entrepreneurs and startups to their own startup ecosystem. In this global trend, entrepreneurs cross the border without hesitation, expecting abundant available resources and a startup friendly environment. Despite the increasing frequency of start-up migration between countries, studies related to this are very rare. Therefore, this study has chosen the cross-border migration of startups between countries as a research topic, and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cross-border entrepreneurial migration to South Korea as a research sample.

This study consists of two stages. The first research stage hires a Delphi method to collect expert opinions and find major factors related to the global startup migration. Drawing on the prior literature on the regional startup eco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age is to conduct expert interviews in order to discover underlying factors and subfactors important for global migration of startups. The second stage measures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and subfactors using the AHP model. The priorities of factors and subfactors were identified hiring the overseas entrepreneurs who moved to Korea as the AHP survey samp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interesting implications. First, a group of entrepreneurs with nomadic tendencies was found in the trend of global migration of entrepreneurs. They had already started their own businesses with the same business ideas in multiple countries before settling down in Korea. Second, important unique factors and subfactors in the context of global start-up migration were identified. A good example is the government's support package, including start-up visas. Third, it was possible to know the priority of the factors and subfactors that influence the global migration of startup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emptively conducted exploratory research focusing on a relatively new phenomenon of global startup migration, which recently catches attention in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At the same time, it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meanings found in this study because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case of South Korea.

Keywords: startup,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igration, startup migration, startup ecosystem, AHP, Delphi

* This paper is partly an excerpt, correction, and supplementation from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first author(Hwa-joon Choi).

** First Author, Ph.D. Candidate, Management of Technology, Yonsei University, hwa-joon.choi@yonsei.ac.kr

*** Second Author, Master's degree Candidate, Management of Technology, Yonsei University, skty1004@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jlee@yonsei.ac.kr